

낙동강 중류지역의 학적 분포와 성리학의 특징: ‘낙중학’의 과제와 전망을 대신하여

추 제 협*

본 논문은 ‘낙중학’, 즉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와 그 전망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를 기획 및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축적했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 또한 없지 않다. 특히 ‘낙중학’이란 용어와 이에 따른 대상 지역 선정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낙중학’이란 용어에 천착하기보다 퇴계학과 남명학에 대한 ‘한려학’의 정립에 집중하고 이에 따라 대구, 구미가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기서는 대구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 17~18세기 성리학적 전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의 이 지역 연구가 17세기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단어: 낙중학, 강안학, 대구권, 대구지역, 18세기 성리학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21..85.003>

* 계명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1. 들어가며

‘낙중학’, 즉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흘렀다.¹⁾ 그 전에도 강안학, 성주문화권 등으로 연구가 없지 않았지만 상류 및 하류지역에 대비한 이 지역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이때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인 성주, 칠곡, 구미, 고령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 지역의 성리학적 전개와 특징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사실 이전의 연구가 주로 문학과 사학 방면에서 이루어져 성리학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그나마 이루어진 성과 또한 부분적인 언급에 머무르다 보니 그 학적 계보조차 명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김굉필로부터 정구, 장현광, 이진상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그 문인들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와 사상적 특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상류와 하류에 대한 점이지대로서 회통과 실천의 학풍이 두드러지고 있음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명칭의 타당성, 대상 지역의 확정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학통의 계보, 공통된 문제의식과 사상적 특징 등 제고해야 할 것들까지,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아직 명확한 이해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듯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통합적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선제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명

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는 ‘낙중학’을 주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기획학술 발표대회를 주관했고, 그 성과를 『낙중학 총서』 총 8권으로 간행했다. 홍원식 외, 『낙중학 총서』 1~8권, 계명대 출판부, 2012~2021.

칭의 타당성과 해당 지역의 설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상 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분포 지역을 학적 경향에 따라 나누고 그 학통의 전개와 특징적인 면모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해당 지역 중 대구를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지침이 될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이른바 새로운 지역학 연구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낙동강 중류지역 성리학의 선결 문제

낙동강 중류지역 성리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선결해야 할 문제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바로 명칭과 지역 설정의 문제이다. 우선 명칭 문제부터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명칭으로는 ‘강안학’, ‘낙중학’, ‘대구권’ 등이 있다. 이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강안학(江岸學)’은 1980년대 문학 방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강안’이란 영남 시가의 특징적 분포를 좌우로 나누면서 그 접점지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동영, 박병련 등이 제기하고²⁾ 이를 체계화한 정우락은 강의 소통성과 통합성이란 관점에서 낙동강이 영남의 문화적 구심점이었던 만큼 성리학의 유입과 발전에 따른 영남의 사유 또한 이를 중심으로 성숙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상류의 퇴계학과 하류의 남명학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의 갈등 및 대립을 아우르는 통합의 사상을 새롭게 열었다고

²⁾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 출판부, 1984, 308쪽; 박병련, 「『광해군 복립 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파」, 『남명학』 11, 남명학연구원, 2002, 230쪽.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중심에 ‘한려학(寒旅學)’이 있음을 상기하여, 이 지역이 16세기 영남 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덧붙였다.³⁾

다음으로 ‘낙중학(洛中學)’은 2000년 들어 철학 방면에서 제기된 명칭이다. 홍원식은 ‘낙중’이란 낙동강 중류지역의 준말이며, 강안학과 기본적인 방향은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적 특징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루는 대상과 시기에 일부 조정을 두었다. 즉 한려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원을 길재와 김굉필로 소급하고 상주의 서애학과를 제외하는 대신 허전의 ‘성재학과(性齋學派)’와 장복추의 ‘사미헌학과(四未軒學派)’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사상을 통시적으로 살펴 퇴계학과 남명학으로부터 비롯된 통합과 변혁의 특징이 근대에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고 보았다.⁴⁾

최근에는 ‘대구권(大邱圈)’이라는 명칭이 주장되었다. 이 명칭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장윤수는 앞서 언급한 두 명칭이 현재 통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안학이 학계에 보편적이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경산, 청도, 영천 등을 포함하기에도 어렵다고 했으며, 낙중학은 ‘낙중(洛中)’이란 한자어가 흔히 낙동강의 도성 안이란 뜻에 상주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지역적 개념을 살려 ‘대구권’을 제안하고 대구지역이란 말과 구별하여 이 지역을 비롯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고 했다.⁵⁾

3)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52~55쪽.

4) 홍원식, 「영남유학과 ‘낙중학’」,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 계명대 출판부, 2012, 17~19쪽.

5) 장윤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 심산, 2021, 19~24쪽.

이 중 일단 '대구권'이 합리적인 선택인 듯하다. 과거 영남의 유교 문화권을 구분할 때 이 지역이 '성주권'이었음을 고려하면, 지금의 지역 구분에 따라 대구권이 좀 더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역의 특징적인 면, 즉 강을 매개로 한 소통과 통합, 그리고 차별적 측면을 '대구권'이라는 명칭이 온전히 내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장윤수는 지역적 범위를 이전 논자들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대구, 선산(구미), 성주, 고령, 칠곡 등을 언급했다.⁶⁾ 이는 '강안학'과 '낙중학'이 제시한 지역과 겹치긴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강안학'에는 상주, 의성, 구미, 김천, 칠곡, 성주, 대구, 고령, 합천, 창녕, 영산, 의령, 함안, 밀양, 창원이 해당되는 반면,⁷⁾ '낙중학'에는 대구(달성 포함), 구미(선산 포함), 칠곡, 성주, 고령, 창녕을 중심으로 위천, 감천, 금호강, 황강 등 지류의 연결 지역인 상주 일부와 김천, 의성, 군위, 영천, 경산, 합천이 해당된다.⁸⁾

여기서 상주와 창원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강안학'보다 '낙중학'이 대상 지역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중학'이 갖는 학문적 성격이 흐려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앞서 18세기 성재학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⁹⁾ 성재학파는 허전(許傳)이 1864년 김해부사로 부임하면서 박치복(朴致馥), 김진호(金鎭祐), 김인섭(金隣燮), 노상직(盧相稷)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이다. 이들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김해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럴 경우 낙동강 하류지역과 겹쳐지게 되어 오히려 논자가 우려했던 '낙중학'의 의미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

6) 장윤수, 앞의 책, 24쪽.

7) 정우락, 앞의 논문, 54쪽.

8) 홍원식, 앞의 논문, 10쪽.

9) 홍원식, 앞의 논문, 17쪽.

‘대구권’을 주장하는 견해도 마찬가지로이다. 흔히 대구권이라면 낙동강 중류지역인 상주, 의성, 구미, 김천, 칠곡, 성주, 대구, 고령, 합천 등을 생각할 때, 이는 ‘낙중학’의 대상 지역과 흡사하다. 장윤수는 17세기 성리학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확대하여 이후의 학적 계보를 살필 때 어떤 학파와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인근 지역을 조금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구권’에 수렴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하류인 ‘부산권’과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명칭에 좌우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우리가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적 특징이고, 이 지역은 강을 통해 공유되는 면과 차별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낙동강은 매우 중요한 기점이자 기표이다. 여기에 ‘대구권’이란 명칭은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강안학’과 ‘낙중학’은 오히려 이를 노출시킴으로써 나름의 유효한 명칭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안학’은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며 ‘낙중학’ 또한 한자어가 갖는 혼란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굳이 특별한 명칭을 설정하기보다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으로 풀어 쓰거나 ‘낙중학’과 병칭하면 어떨까.

다만 이 지역의 사상적 특징을 논할 때는 퇴계학과 남명학의 대비된 견지에서 언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겸할 수 있는 명칭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퇴계학을 달리 ‘낙상학’이라 하고, 남명학을 달리 ‘낙하학’이라고 지칭하지 않듯 이 지역의 학문을 굳이 ‘낙중학’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퇴계학과 남명학에 견줄 학문적 명칭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럴 경우 ‘한려학’이란 학적 명칭을 활용하여 그 시원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문제는 이보다 그 대상 지역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있다. 흔히 말하는 낙동강 중류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서애학맥의 거점인 상주지역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그렇다

고 김해에까지 소급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징은 물론 학문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듯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17세기에 비해 18세기 이후의 사상적 흐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3세대의 활동이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오히려 이런 점이 좀 더 집약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낙동강 중류지역 성리학의 학적 분포

이제 이러한 전제에서 낙동강 중류지역 성리학의 학적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검토할 대상 지역으로는 대구를 비롯해 성주, 칠곡, 고령, 구미, 김천, 의성, 창녕, 합천 등이다. 이를 성리학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¹⁰⁾

14세기~15세기 구미, 선산에서는 길재(吉再),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에 이어 16세기에 들어 장현광의 학풍이 이어져 '여헌학과(旅軒學派)'가 차츰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김종직의 제자이자 현풍에 있던 김굉필(金宏弼)의 문풍은 그의 외증손인 정구(鄭述)로 이어져 퇴남학(退南學)의 학풍과 함께 계승됨으로써 '한강학과(寒岡學派)'가 형성되었고 이들 문인들은 성주를 비롯해 대구, 칠곡으로 확산되었다. 때마침 이들 사이에 혼맥이 형성됨으로써 '한려학과(寒旅學派)'로의 통합 아래 문인들의 결집은 더욱 견고해졌다.¹¹⁾

10) 『낙중학 총서』 8권의 성과를 집약했다. 홍원식 외, 앞의 책.

11) 당대에 정구와 장현광의 상호 경쟁구도가 조성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김학수, 「17세기 여헌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회, 2010, 25쪽.

이러한 분위기는 17세기 정구의 안동부사 부임(1607)과 동래온천 방문(1617) 전후로 절정에 이른다. 정구 사후 장현광은 그를 이어 종장의 자리에 올라 더욱 다채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의 학설이 대개自得之學(自得之學)에 의한 것이라 퇴남학과 달리 남다른 바 있었고, 이런 학문 경향은 이 지역에 다양한 학풍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성주, 대구, 칠곡을 중심으로 정구의 직전 및 재전 제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성주에는 이서, 이천봉, 최항경, 배상룡 등이, 대구에는 손치눌, 도성유 등이, 칠곡에는 이윤우 등이, 구미에는 조임도, 신열도 등이, 고령에는 박정번 등이 대표 문인으로 활동했다.

18세기 칠곡에는 최홍원이 퇴계학을 계승하고 이상정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고령에는 유치명과 이상정의 문인인 이종기가 퇴계학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 학풍을 전개했다. 더불어 정구와 윤호전, 허목의 인연은 근기지역에 이황과 정구의 학풍을 숭상 및 전파하는 데 공헌했다.¹²⁾

이 흐름은 19세기 들어 이진상과 장복추에 의해 계승된다. 이진상은 숙부 이원조의 학풍을 이어 유치명과 그의 문인 김홍락, 허전 등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학설을 제기한다. 바로 ‘심즉리설(心卽理說)’과 ‘리발일도설(理發一途說)’인데, 이는 예안의 문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문하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장복추는 이런 선조의 학설을 계승하여 그의 복위를 피하고자 했다. 마침 소퇴계(小退溪)로 불리던 이상정이 장현광의 사상에 영향 받은 바 없지 않았던 터라 그를 통해 퇴계학과의 소통을 모색했다.

이상에서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개 정구와 장현광, 이진상 등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았고, 그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없지 않다. 다만 현재의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전개를

¹²⁾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낙중학, 조선시대 낙동강 중류지역의 유학』, 계명대 출판부, 2012, 172~177쪽 참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전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학적 분포를 생각해 보자.

이 지역의 초창기 성리학적 학풍을 연 곳은 선산과 현풍이지만 본격적인 학맥을 형성한 것은 16~17세기 한려학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려학파의 활동 근거지였던 성주, 구미를 비롯해 대구, 칠곡 등은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다.

우선 성주는 한강학파의 출발지인 만큼 정구의 문인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¹³⁾ 정구는 한강정사(31세)를 시작으로 회연초당(41세), 무휼정사(62세)를 거치면서 성주지역 문인들을 대폭 규합했다. 대표 직전 문인으로는 최항경(崔恒慶), 박명윤(朴明胤), 이서(李竹+舒), 이천봉(李天封), 이육(李堉), 배상룡(裴尙龍), 이학(李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혼맥이나 가문을 통해, 또는 부자나 형제 관계에서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령 이서는 정구의 처족인 광주이씨 가문의 일원으로 이황에서 정구로 이어지는 학풍을 가학으로 계승했고, 이육은 전주이씨로 정구의 벗인 이승의 아들 중 하나이며 김우옹의 문인이었으나 아버지의 명으로 정구의 문하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천배(李天培)와 이천봉 형제는 평생 정구 문하에 있으면서 「한강선생변무소(寒岡先生辨誣疏)」, 「봉산욕행(蓬山浴行)」 등 중요한 일들을 주도했다. 최항경은 그의 아들인 최은, 최린과 함께 정구 문하에 나아가 천곡서원과 회연서원 원장을 역임하며 다음 세대 양성을 책임졌다. 배상룡은 정구 사후 문집 간행에 참여하는 등 스승 현양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허목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강학파의 일원으로 소속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이진상의 출현을 예고했고, 그는 퇴남학은 물론 율곡학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의 학설은 아들 이승희(李承熙)를 비롯한 '주문팔현(洲門八賢)'에 의해

¹³⁾ 김학수(앞의 논문, 136~137쪽 참조)의 조사에 의하면 정구의 문인 342명 중 성주 67명, 대구 30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계승되고 발전한다.

한편 구미는 길재의 유풍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김숙자를 거쳐 김종직, 김굉필에 이르고, 이 학풍이 성주에서는 정구로, 이 지역에는 정봉(鄭鵬)에 이어 박영(朴英)으로 계승된다. 박영은 심학을 바탕으로 한 도학적 실천을 학문의 요지로 삼았으며, 이러한 학풍은 문인인 김취성(金就成), 박운(朴雲), 노수함(盧守誠)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김굉필에서 조광조로 이어지는 계보를 따라 수학했던 김진중(金振宗), 허백기(許伯琦), 장잠(張潛), 장순(張峯)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장현광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계승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학설을 전개한다. 즉 리기경위(理氣經緯)를 바탕으로 한 성리설과 역학을 주장했다. 이는 그의 문인인 조임도(趙任道), 김휴(金休), 신열도(申悅道), 장경우(張慶遇), 노경임(盧景任) 등 ‘여헌십현(旅軒十賢)’을 통해 그 세를 확장하여 이진상은 물론 이상정과 그 문인이었던 정종로, 근기지역의 이익 등에 계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⁴⁾

한려학파는 이러한 두 지역을 거점으로 형성 및 전개되었으나 정구가 1612년 칠곡의 노곡정사로, 다시 1614년 사빈의 사양정사로 옮기면서 대구와 칠곡으로 그 세를 확장하게 된다. 사실 대구는 그 이전에 이황의 문인이었던 전경창(全慶昌)과 사숙인 채응린(蔡應麟), 정사철(鄭師哲)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있었고, 그 결과 광재검, 서사원, 손처눌 등 2세대 인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승 사후 정구의 문하에 나아가 배움을 이어갔고, 장현광 등 여러 문인들과도 돈독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은 하나의 전기를 맞는 사건으로, 이들은 수기(修己)와 심학에 근

14) 안영상, 「대산 이상정의 혼륜·리발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헌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 사상연구』 27, 한국유교학회, 2006; 추제협, 「이익의 ‘감발설’에 나타난 장현광의 사상적 영향」, 『한국학논집』 54,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4; 추제협,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 단설과 병설의 통합적 사유」, 『영남학』 7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거한 학문을 바탕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실천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혼란함을 수습하기 위해 1564년에 건립된 연경서원을 1602년에 중건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풍 쇄신의 바람이 있었던 터에 마침 정구가 칠곡으로 이거한 것은 좋은 계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대구가 한강학파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다만 이들에게 퇴계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들 중 이미 조식의 학문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정구의 학문이 쉽사리 전파되고 수용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황과 조식의 문하에 모두 출입했던 전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점은 '한강고변사건(寒岡告變事件)'과 '회퇴변척사건(晦退辨斥事件)'으로 인해 서사원과 손처눌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고, 이는 3세대 성리학자의 특징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칠곡은 정구의 고제인 이윤우(李潤雨)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전 고려 때에 김수(金洙)와 장안세(張安世) 등이 활동했으며, 특히 김수는 녹봉서당(鹿峯書堂)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했다.¹⁵⁾ 이후 두드러진 인물들은 없었지만 정구가 이거하고 인근 인동에 장현광이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이윤우는 광주이씨로, 같은 문인이었던 이문우(李文雨), 이심민(李心愍), 이도장(李道長) 등이 모두 친족관계였다. 그는 정구의 문하에 30년 동안 수학하였으며 만년에는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등 스승의 저술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시기에 이언영(李彦英)도 주목된다. 그는 서사원에 이어 정구와 장현광 문하에 나아가 수학했고, 문과에 장원 급제한 수재였다. 평소 이윤우, 배상룡 등과 교류했으며 올곧은 성품에 인목대비를 폐위한 광해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 후손들이 장현광의 문인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

15) 홍원식 외, 『녹봉정사와 조선중기의 낙중학』, 계명대 출판부, 2020.

고, 이러한 흐름은 장복추(張福樞), 장석영(張錫英) 등에게 이른다. 이들은 장현광의 후손으로, 장복추는 이상정의 문하에 나아가 선조의 사상을 복위하고자 퇴율학의 통합적 전통을 계승한 반면, 장석영은 이런 장복추의 가르침에 이진상의 사상에 매료되어 이를 중요한 학문적 배경으로 삼았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까지 이어져 근대 이행기의 위정척사론으로 전개된다.

그 외에 고령, 창녕 등의 지역에도 정구의 문인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이 지역의 전파와 학문적 계승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지역 중 일부에서는 송시열, 이재 등 서인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활동한 인물들이 더러 있는 만큼, 이런 독자적인 학문을 형성 및 전개한 국면들도 함께 살펴 이 지역의 성리학적 특징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지금의 연구가 포괄적이면서 개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자칫 놓친 많은 길목들이 보인다. 이 지역이 상류의 퇴계학과 하류의 남명학, 더 나아가 기호지역의 율곡학을 염두에 둔 차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길목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이 요청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지역의 성리학적 특징 또한 온전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낙동강 중류지역의 개별 연구에 집중할 때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접근 기준을 마련하여 학문의 근원지부터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 중 한 지역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4. 낙동강 중류지역 성리학의 특징 검토

최근 들어 대구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 시기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과 대표 인물을 소개하는 데에서 시작하여¹⁶⁾ 초기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학맥과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어 대구 성리학의 세대별 구분에 따라 2세대와 3세대 성리학자들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고찰이 본격화되었고,¹⁷⁾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¹⁸⁾

이렇듯 대구는 사상적 불모지로 인식되었던 과거와 달리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이 주목받으면서 그 가운데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물론 성주와 구미에 비해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듯 보이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지역은 여전히 탐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 대구와 타 지역의 사상적 영향관계를 고려하면 성주나 구미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사상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이해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머무르고자 한다.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으로 제출된 것으로는 구분옥, 홍원식, 장윤수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 중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우선 구분옥은 대구지역 성리학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했으며, 특히 1세대 인물인 이황의 문인 전경창을 비롯해 채응린, 정사철

16) 장윤수·임종진, 「한강 정구와 조선중기 대구권 성리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8,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17) 구분옥,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 『조선사연구』 28, 조선사연구회, 2019.

18) 장윤수, 앞의 책.

등에 집중했다.¹⁹⁾ 그들의 생애는 물론 교유관계, 강학 활동, 사상적 특징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특히 임란기 팔공산 창의 과정과 관련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이 지역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²⁰⁾ 또한 초기 대구지역 학풍을 이끌었던 연경서원 창건과 중건 과정, 강학과 관련 인물들에 관한 연구 또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²¹⁾

이 중 대구지역 성리학자를 3세대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은 주목된다. 즉 1세대는 이숙량(李叔樑), 서형(徐澗), 전윤창(全胤昌), 전응창(全應昌), 채응린(蔡應麟), 채응룡(蔡應龍), 정사철(鄭師哲), 서식(徐湜), 전경창(全慶昌), 주신언(朱愼言) 등이며, 2세대는 이들과 학연이 있는 인물들로 서사원, 손처눌, 광재검, 류요신(柳堯臣), 정광천(鄭光天), 이주(李輔), 여(呂○○), 채선각(蔡先覺), 전춘연(全春年), 배극염(裴克念), 박충후(朴忠後), 박몽상(朴夢祥) 등이다. 이어 3세대는 2세대로부터 확산된 문풍에 의해 배출된 인물들로, 모두 265명에 이른다. 그 대표 인물을 들면 다음과 같다.

손처약(孫處約), 서사술(徐思述), 이경배(李景培), 도경익(都慶益), 나응숙(羅應淑), 이원생(李元生), 류시번(柳時藩), 도성유(都聖俞), 류사온(柳思溫), 도응유(都應俞), 도여유(都汝俞), 이종문(李宗文), 손린(孫遴), 이윤우(李潤雨), 우배선(禹拜善), 채선견(蔡先見), 서사선(徐思選), 최동률(崔東崙), 이지영(李之英), 최동집(崔東集), 이지화(李之華), 채몽연(蔡夢硯), 박종우(朴宗祐), 채무(蔡楸), 도경유(都慶俞), 서시립(徐時立), 도신여(都愼與), 도신수(都愼修), 정사상(鄭四象), 손우남(孫宇男), 황경림(黃慶霖), 정사진(鄭四震), 채선길(蔡先吉), 채선수(蔡先修), 정수(鄭鍾), 정기(鄭錡), 이휴운(李休運), 정사물(鄭四勿), 정극후(鄭克後), 장경우

19) 구본옥,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계동 전경창」, 『조선사연구』 20, 조선사연구회, 2011;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송담 채응린 -대구 제1의 정자 압로정, 소유정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1, 조선사연구회, 2012; 「금호강 하류에 선사서당을 연 임하 정사철 -아금암, 아금정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3, 조선사연구회, 2014.

20) 구본옥, 『임하 정사철과 낙에 정광천 선생』, 학이사, 2015, 81~86쪽.

21) 구본옥, 『연경서원과 대구 유현 통강록』, 동방, 2014, 4~34쪽.

(張慶遇), 이지형(李之馨), 정호인(鄭好仁), 김시성(金是聲), 정사명(鄭嗣明), 이도장(李道長), 정승명(鄭承明), 정호의(鄭好義), 정호신(鄭好信), 서변(徐忞), 이도장(李道章), 이구(李球)²²⁾

이러한 세대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2세대 성리학자들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발판은 역시 1세대 인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논자의 연구는 이 분야의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 이들의 성리학적 특징을 보면, 대개 퇴계학의 확산이란 연속선상에서 이해한 듯 보인다. 자료의 소실로 단편적인 언급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은 사서(四書)를 기본으로 하되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을 주로 탐독했으며, 그 실천에서는 『소학(小學)』을 근간으로 했다.²³⁾ 이러한 경향은 2세대에 그대로 계승되며 1602년 연경서원의 중건과 함께 '통강(通講)'이 재개되어 광재검, 서사원, 손처눌 등을 주축으로 많은 유생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했다.

다만 논자는 2세대 성리학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구지역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탐구는 물론 세대별 전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피할 수 없기에 그의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아마도 기초 작업으로 세대별 전환과 그 거점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 대구지역 성리학에 대해서는 자료 빈곤이 극심한 터라 이러한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를 시작조차 할 수 없기에 더 없이 소중한 정보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홍원식은 낙동강 중류지역 성리학을 '낙중학'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시도하는 가운데 대구지역에 건립된 연경서원과 관련 인물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사원과 서사선의 연구이다. 우선 논자는 서사원의 학문이 '도학(道學)'이라 전제하고

22) 구분옥, 앞의 논문, 2019, 100~104쪽.

23) 구분옥, 앞의 논문, 2011, 26~33쪽.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학이란 주자학적 배경 아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중시하며 무엇보다 실천궁행(實踐躬行)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도학자들은 『소학』을 수기(修己)의 교본으로 삼았으며, 도덕실천의 주체로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궁구에 관심이 깊어 심학(心學)을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모범적 ‘제가(齊家)’의 실현에 힘을 쏟아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중심으로 한 가례의 실천에 매진한 결과 예학(禮學)을 발전시켰다. 나아가 그들은 재지사족이라는 출신적 배경 아래 향촌사회를 주도하며 향촌 교육과 교화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서원 설립과 운영 및 강학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사우들과의 교류를 무엇보다 중시하였으며 수시로 향사례(鄉射禮)나 향음주례(鄉飲酒禮) 등을 행하였다. 반면 ‘치국(治國)’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치국의 방편으로 과거를 통한 관계 진출을 시도하긴 했지만, 특히 영남 출신의 도학자들은 이에 대해 선택적이고 소극적 자세를 가졌다. 그러나 국난이 닥쳤을 때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의 정신에 따라 의연히 떨쳐 일어나는 것이 그들이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대구지역에서 위와 같은 전형적인 도학자의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서사원이다.²⁴⁾

도학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서사원을 이러한 도학의 실천자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 도학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가령 실천궁행, 위기지학, 수기, 심학, 예학, 대의명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지침 아래 이황과 정구의 심학을 바탕으로 한 수기에 집중했고 제가를 목표로 하여 치국에 소극적으로 보이거나 국난의 극복 앞에서는 대의명분을 통해 의연히 행동한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홍원식, 「낙재 서사원의 철학사상」, 『한국학논집』 7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8, 247쪽.

서사원의 종제인 서사선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다. 논자는 서사선이 정구와 서사원에 의해 이어온 퇴계학을 계승하여 경(敬)을 통한 존덕성(尊德性)의 마음공부에 천착했다고 한다. 다만 한강학을 '명체적용(明體適用)'의 관점에서 보면 정구가 도학을 체로, 예학과 경제학을 용으로 삼은 데 반해 그는 도학인 명체의 학에 집중했다고 보았다.²⁵⁾

논자의 연구가 두 인물에 국한되어 전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이황을 계승한 정구의 심학을 바탕으로 수기의 학문에 집중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는 한강학의 전파와 확산에 근거하여 대구지역 성리학을 이해한 것으로, 여기에 연경서원의 건립과 제향 인물에 대한 논의를 더하면 결국 퇴계학의 남전(南傳)에 수렴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전체적인 조망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자칫 대구지역만의 특징적 면모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세대 성리학자의 경우 주자학에 매몰되지 않는 학문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에서 퇴계학만에 국한되지 않고 남명학은 물론 율곡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치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이 지역의 특징이 온전히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 다음 연구는 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

장윤수는 낙동강 중류지역을 '대구권'이라고 칭하고 17세기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와 특징을 해명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논자는 1601년 대구에 경상감영이 자리했으나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고 김굉필의 수기지학(修己之學), 1564년 이숙량을 주축으로 한 연경서원 건립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의병활동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예교의 진흥과 교육의 활성화가 학문적 구심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25) 홍원식, 「동고 서사선의 삶과 사상」, 『국학연구론총』 20, 태민국학연구원, 2017, 78~79쪽.

정구와 장현광의 ‘한려학’이 있다고 했다. 이 영향 아래 대구권 성리학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회통, 자득, 실천이다.

대구권 성리학은 종래 영남지역의 성리학 중에서도 제3지대로서 영남우도와 좌도, 남명학과 퇴계학의 접점 지대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성리학은 단지 교차 문화의 절충적 성격만 지닌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바탕을 둔 회통성, 자득성, 실용과 실천성을 담지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대구권 성리학은 성리학적 논변에 있어서 두드러진 인물은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방적 회통성과 실용·실천성을 빼어나게 유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²⁶⁾

여기서 회통성은 퇴계학과 남명학은 물론 영남학과 기호학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학문적 개방성을 말한다고 했다. 자득성은 조선 초기의 자주적 성격에서 비롯된 도학파의 자기 성찰과 실천으로, 대구는 이러한 특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고 했다. 실천성은 성리학적 실천 및 실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시기 집단적 의병활동, 이후 통강 문화의 성행, 그리고 향약의 실천에서 나타난다고 했다.²⁷⁾

이러한 특징 아래 대구지역은 자료 『통강록』과 성주도씨 문중의 성리학자들, 칠곡지역은 최홍원 가문을, 구미지역은 박영을, 그 외 고령은 물론 성주칠곡지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논자의 연구는 대구권 성리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이자 이 지역만의 고유한 학풍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갖는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퇴계학 내지 한강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 것과 달리 지역적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6) 장윤수, 앞의 책, 45~46쪽.

27) 장윤수, 앞의 책, 32~45쪽.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다. 첫째, 시기의 문제이다. 논자는 머리말에서 본 연구를 17세기로 제한했다. 당연히 이때가 흥성기이고, 그렇기에 이 지역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공감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이후 후속 작업을 예상할 수도 있다. 다만 대구권 성리학에 대한 선 이해를 위해 우선 전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별 통시적 접근이 유효할 테다. 물론 논자 또한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총론에서 지형도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좀 더 상세히 서술하는 미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

둘째,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유효성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특징들이 과연 퇴계학과 남명학, 더 나아가 율곡학과 대비하여 이 지역만의 고유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자득과 실천은 퇴계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통성은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지역적 차이와 함께 정구보다는 장현광의 사상이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지역 성리학에 대한 접근은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별 통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낙동강 중류지역 전체의 성리학을 파악하는 데 이러한 관점을 견지했지만 한 지역을 검토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그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대구지역은 3세대 성리학자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1세대에서 3세대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2, 3세대에 대한 개별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최근까지 광재검, 서사원, 손처눌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²⁸⁾ 특정 인물에 한정될 뿐, 그 외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3세대는 그 문인의 수를 볼 때 가장 활발한 성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17~18세기 대구지역 성리학적 전개가 온전히 파악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물론 자료의 결핍이 걸림돌로 작용하겠지만 확보될 수 있는 문헌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를 포괄적 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인물별 사제 및 교유 활동, 그리고 사상적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각 세대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한 복원은 물론 사제 및 교유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자료 발굴을 통한 사상적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공유된 문제의식과 사상적 대안을 검토하여 교차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 그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이 글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주관한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논란이 된 선결 문제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선별하여 학적 분포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리학적 특징을 검토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28) 추제협, 「서사원의 심학과 의병활동」,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2015;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곽재겸, 서사원, 손치눌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추제협, 「모당 손치눌의 수신지학과 의병·강학활동」, 『퇴계학논집』 2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박중천,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 『국학연구』 44, 한국국학진흥원, 2021.

기존 연구에 논란이 된 문제는 명칭의 타당성과 대상 지역의 혼선에 대한 것이다. 우선 현재 제출된 '강안학', '낙중학', '대구권'을 검토하여 낙동강이 갖는 공유성과 차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으로 풀어 제시하되 그 내용에서 퇴계학과 남명학에 대한 '한려학'을 염두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지역은 흔히 말하는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보되 상주와 김해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대상은 대구를 비롯한 성주, 칠곡, 고령, 구미, 김천, 의성, 창녕, 합천이 될 것이다. 이 중 초창기 학풍을 연 곳은 산산과 현풍이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16~17세기 한려학과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거점인 성주, 구미를 비롯한 대구, 칠곡 등을 통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성주는 한강학파가, 구미는 여헌학파가 형성된 곳으로 그 전후의 사상적 흐름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대구와 칠곡으로 전파되고 그 지역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지금의 연구가 대개 포괄적이면서 개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탓에 자칫 놓친 많은 길목이 있으며, 이 길목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이 보완되고 통합될 때 이 지역의 성리학적 특징 또한 온전히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대구를 대상으로 대표 연구들을 검토하여 접근 기준에 대해 모색한 결과, 1세대에서 3세대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 2, 3세대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진행하되 인물별 사제 및 교유 활동, 그리고 사상적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 따른 실질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때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낙동강 중류지역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상기하면 지금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이 지역이 상하류와 대비적 관점에서 그 고유성과 차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전히 특정 인물이나 시기에 한정된 탓에 좀 더 진

전된 논의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지역별 통시적 접근을 통해 인물과 시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개별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상적 특징에 대한 통합적 논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치며, 여기서 한 비판과 제안은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본옥, 『연경서원과 대구 유현 통강록』, 동방, 2014.
- 구본옥, 『임하 정사철과 낙애 정광천』, 학이사, 2015.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 출판부, 1984.
- 장윤수,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 심산, 2021.
- 홍원식 외, 『낙중학 총서』 1~8권, 계명대 출판부, 2012~2021.
- 홍원식 외, 『녹봉정사와 조선중기의 낙중학』, 계명대 출판부, 2020.
-
- 구본옥, 「대구지역의 성리학을 연 계동 전경창」, 『조선사연구』 20, 조선사연구회, 2011.
- 구본옥,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송담 채응린 -대구 제1의 정자 압로정, 소유정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1, 조선사연구회, 2012.
- 구본옥, 「금호강 하류에 선사서당을 연 임하 정사철 -아금암, 아금정과 관련하여」, 『조선사연구』 23, 조선사연구회, 2014.
- 구본옥,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 『조선사연구』 28, 조선사연구회, 2019.
- 김학수, 「17세기 여한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회, 2010.
- 박병련, 「'광해군 복립 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과」, 『남명학』 11, 남명학연구원, 2002.
- 박중천,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 『국학연구』 44, 한국국학진흥원, 2021.
- 안영상, 「대산 이상정의 혼륜·리발설의 착근에 있어서 여현설의 영향과 그 의미」, 『유교사상연구』 27, 한국유교학회, 2006.

- 장윤수·임종진, 「한강 정구와 조선중기 대구권 성리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8, 동양사회사상학회, 2003.
-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추제협, 「이익의 ‘감발설’에 나타난 장현광의 사상적 영향」, 『한국학논집』 54,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4.
- 추제협, 「서사원의 심학과 의병활동」, 『동양철학』 44, 한국동양철학회, 2015.
-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곽재겸, 서사원, 손치눌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추제협, 「모당 손치눌의 수신지학과 의병·강학활동」, 『퇴계학논집』 2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 추제협,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 단설과 병설의 통합적 사유」, 『영남학』 78,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 홍원식, 「동고 서사선의 삶과 사상」, 『국학연구론총』 20, 택민국학연구원, 2017.
- 홍원식, 「낙재 서사원의 철학사상」, 『한국학논집』 7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8.

The academic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Neo-Confucianism in the midstream of the Nakdong River: Instead of the project and prospects of 'Nak-Joong-Hak'

Choo, Je-hyeop (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Nak-Joong-Hak, Gang-An-Hak, Daegu-Kwon, Daegu Area, 18th century Daegu Neo-Confucian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future project and prospects for studying abroad in the midstream of the Nakdong River, 'Nak-Jung-Hak'. Keimyung University'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has accumulated many achievements over the past decade while planning and conducting it, but there are also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for a new start. In particular, the term "Nak-Joong-Hak" and the subsequent selection of target areas are still controversial, so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m. In this regar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erm "Nak-Joong-Hak", that is, Neo-Confucianism in the midstream of the Nakdong River, it should focus on 'Hanryo-Studies' for Toegye-Studies and Nammyeong-Studies, and thus Daegu and Gumi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base areas. However, by critically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Daegu area and emphasizing the need to focus on the Neo-Confucian development of the 18th century, he argued that future regional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17th century.

(2021.10.30. 접수: 2021.11.19. 수정: 2021.12.06. 채택)

추제협

계명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계명대 철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남명학과 현대사회』(공저), 『약포 정탁』(공저), 『한국철학을 다시 만나다』(공저),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공저), 『서유자를 흠모하며 거경궁리의 학문을 이루다, 의성 천사 김종덕 종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이익의 사단칠정설과 성호학파의 사상적 분기」, 「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희와 이만부의 사상적 영향」,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곽재겸, 서사원, 손처눌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E-mail: jhchoo@kmu.ac.kr